

개성의 근대 : 함남도 '북부' 도시 연구의 모색

2019년 11월 16일(토) 오후 1시-6시, 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03호

- 주최 : 역사학연구소 - 후원 : 국사편찬위원회

제1부 사회 : 정일영_서강대

발표 1: 고종 초중반 개성부의 행재정 동향과 세출입의 변화 / 김태웅_서울대 - 토론 : 송양섭_고려대

발표 2: 1920~30년대 개성부회의 예산 논의와 사회기반시설 변동 / 김윤정_동국대 - 토론 : 서일수_국사편찬위원회

발표 3: 일제강점기 개성지역 사회운동의 전개와 특징 / 최보민_성균관대 - 토론 : 전명혁_동국대

발표 4: 1930년대 개성상인 간 백삼 유통 갈등과 해결 과정 고찰 / 양정필_제주대 - 토론 : 박현_대한민국역사박물관

제2부 사회 : 홍순권_동아대

기조발표 : 근대 로컬리티 연구의 성과와 한계 / 임종명_전남대

종합토론: 김백영_광운대, 오미일_부산대, 허영란_울산대